다산포럼

그 많던 여공들, '위로공단'에서 만나요!

유 지 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어느 여름 밤, 구로 아트밸리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막 보고 온 다큐멘터리 '위로공단'(2015, 임흥순) 이미지에 자극받아 그런 것이리라. 포스터에는 하늘이 트인 황량한 곳에 눈 가린 여자가 서 있다. 천천히 보면 그녀 뒤로 뭔가 작업하는 두 여자가 보인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여공일까? 그런데 그녀는 왜 눈을 가렸을까? 호기심이 인다.

2009년 '여성주간' 기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연했던 씨네콘서트는 힘들어도 즐거운 일이지만, 구로 아트밸리 공연만은 유독 다르게 다가왔다. 여공시대는 '호스티스 영화'와 더불어 넘겨진 과거 어두움 정도로 여겼다.

그런데 구로공단 그 자리, 여공들이 살던 그곳이 '디지털 단지'가 되었지만, 막상 가서 공연하려니 먹먹해졌다.

자초지종을 모르는 무지한 자신을 책망하며 고민하는데 평소 외우던 시 한 편이 떠올랐다. 고교 시절, 글쓰기의 묘미를 일깨워 주신 시인 문정희 국어 선생님의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바로 그 시.

"저 높은 빌딩의 숲, 국회의원도 장관도 의사도/ 교수도 사업가도 회사원도 되지 못하고/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리저리 밀쳐져서/ 아직도 생것으로 굴러다닐까"

언제 읽어 봐도 현실적 비애감이 울려오는 그 시를 교복 입은 졸업 앨범 사진과 몽타주해서 읽으며, 여학생이 여공일 수도 있다는 내게 유리한 최면을 걸며 씨네콘서트를 치러 냈다.

그런데 '위로공단'을 보노라니, 그 기억을 타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여자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여자들, 그녀들의 삶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왜 그래야 하는지 탐구하고픈 열망이 피어난다. 다큐 도처에 그런 자극이 만발한다.

구로공단 여공의 일은 이제 캄보디아 여공들이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면 잘살게 된다는 최면에 걸려 12시간 이상 일하며 고행 길에 들어선 여공들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폭넓게 이동한 흔적을 마주하게 된다.

유럽이나 미국 국적 비행기에는 튼튼해 보이는 바지 입은 여승무원도 있다. 그런데 왜 한국 국적 비행기엔 유독 여린 체구의 치마 입은 여승무원 다수가 감정 노동을 미적 노동으로 소화하며 지쳐 떨어지는지, 다큐를 보노라면 이해하게 된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언니들도 가슴 저린 경험담을 토로한다. 결제 카드를 내던지는 손님도 있고, 또 어떤 손님은 데려 온 아이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이런 데서 일하게 된다"고 말한다니. 이걸 전해 듣노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저급한 인권 수준에 직면하게 된다. 나라도 그런 행동 안 하는 게 다행이라는, 그 생각 자체도 서글프다.

40년간 봉제공장 '시다'로 일하신 어머니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계 도처에 얼굴을 가린 모든 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 다큐는 '아시아 여성들의 노동조건과 관계된 불안정의 본질을 섬세하게 관찰한 수작'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도처 미술관과 극장으로 나가고 있다. 분명 지금보다 더 처연하고 아팠을 일제 강점기, 최초의 대중가요로 유행가가 된 '희망가'로 장식하는 에필로그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하여 지금도 듣는다. 유튜브에 접속하면 여러 가수의 여러 버전으로 듣을 수 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 담소 화락에 엄벙덤벙/ 주색잡기에 침몰하랴/ 세상만사를 잊었으니/ 희망이 족할까"

제목처럼 이 작품은 위로를 준다. 위로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는 창조 놀이, 예술의 기술에 감사하며 여러분도 이 다큐를 극장에서 만나 보시길 기원한다.

NGO 칼럼

아동학대 대부분은 친부모가 '주범'

김 승 일
4대악척결운동본부 광주지부 사무처장

"애가 어쩜 이렇게 당신을 많이 닮았지, 당신 판박이네! 붕어빵이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두고 엄마가 아빠에게 으레 하는 말이다. 아빠를 닮기는 했지만 엄마를 훨씬 더 많이 닮았는데도 남자들은 자신이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에 유난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엄마와 외가 쪽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아빠와 친가 쪽 사람들은 긴가! 민가? 한다.

가정폭력을 휘두른 부모들 중 가장 심하게 아이를 학대한 원인이 아이가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가 친자인지 의심하게 될 때에는 아마 얼굴 생김새 말고도 여러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이러한 의심은 조부모가 손자에게 쏟는 애정에도 미묘한 차이를 보여 양가를 비교해 봐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더 많이 돌본다고 하니 친손자보다 외손자를 보다 우선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 학대 신고는 1만7700건으로 2013년 1만3000건에 비해 36%나 늘어났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4%인 1만5000건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되었고, 이 중 1만 건이 아동학대로 최종 확인되었다. 또, 학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아동은 17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83건(2013년 279건 대비 1.4% 증가), 전남은 928건(2013년 641건 대비 44% 증가)으로 증가 추세이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2013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 81.8%)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다.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10.0%) 순으로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아이를 믿고 맡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유아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언론과 여론을 후끈하게 달구었다.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 요구 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하였으나 보육교사의 인권침해와 훈육 등 학부모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남아있다.

어린이집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사례는 2011년 159건, 2012건 135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는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의 약 2%에 지나지 않고 아동학대 행위자(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라고 하니 학대의 '주범'과 '주무대'는 우리들 가정에 있다고 한다.

이혼이나 별거로 헤어지는 부모들도 많다. 아이 편에서 보면 부모가 헤어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부모와 더는 함께 살 수 없게 되면서 아이는 부모의 애정뿐만 아니라 투자를 덜 받게 된다. 아이가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족의 역할이고 이웃 공동체의 임무이다.

청소년으로 성장해 가는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나갈 가족 환경이 중요해 보인다. 남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알고 키우는 '빠꾸기 아빠'가 늘어야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족폭력도 줄어들 것 같다.

기 고

광복 70주년과 한·일수교 50년

이 동 범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전 광주교총회장

금년 8·15 광복절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날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일제 치하 35년간 고난과 수탈을 당한 우리 민족이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해방을 맞이한 뜻깊은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흔적이며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 현재를 잘 아는 사람은 과거를 불러와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기억'으로 만들고 미래를 불러와 '희망'으로 바꾼다. 기억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희망도 없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강제노동과 징용에 시달렸다. 우리의 역사, 언어, 문자, 심지어 성과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는 등 민족정신 말살정책을 겪었다. 전쟁물자와 식량 공급을 위해 각종 약탈을 감행한 일본인들의 만행을 알아야 한다. 또한 위안부 동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적으로 대규모 위안부를 징집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 기간 중 저지른 가장 잔악하고 반인륜적인 죄악 중의 하나임을 일본은 자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온갖 탄압 속에서도 광복을 위해 국내에서는 우국지사들의 지하운동이 맹렬했으며, 해외에서는 김구선생을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광복군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계속 했다. 국내외적으로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안중근의사, 윤봉길의사, 이준열사 등의 우국충정을 잊어서는 안된다.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서 보여준 자주정신과 저항정신을 발휘한 우리의 민족정신을 결코 망각해서도 안된다. 이번 기회에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민족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교육을 해야 한다. 주체적 민족사관을 정립하도록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을 바르게 갖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과 국민의 책무란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한·일 수교 50년이 되었지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풀어야 할 3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불인정하고 있으며 잇단 협의 중에서도 의견차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1965년 청구권 협정 근거로 보상을 외면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이다. 셋째는 갈수록 심해지는 교과서 왜곡 등을 통한 끝없는 야욕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국이 풀어야 할 핵심과제다.

한·일 갈등은 일시적이 아니라 다변화, 장기화, 구조화, 국제화하면서 화해의 출구를 막고 있다. 일본은 가해의 역사에 겸허하게 사죄하고 한국은 피해의 역사를 극복해야 새로운 관계가 가능해질 것이며 변화의 핵심은 '커진 한국'과 '작아진 일본'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는 두 나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을 공유하는 '쌍둥이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일은 여전히 많다. 한·일의 협력모델은 '국제사회의 공공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베 담화를 모두의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다. 아베 담화가 나왔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더 길게 더 넓은 시각으로 일본인들을 마주보고 우리가 받았던 식민지배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했을 때 양국이 만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에 대하여 끈질기게 얘기하고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의 유래와 의의를 알고 늘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애국충정에 고마움을 느끼며,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의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갈등에서 화해로 돌아서는 기회로 만들 책임은 양국 지도자에게 있으며,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社 說

무등산 군부대 이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다.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방부가 밝힌 데다 국방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광주시가 최근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것은 순전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덕분이다. 권 의원은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접촉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도 권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부대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아울러 현재 군부대 부지가 모두 사·공유지로,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 부대 부지가 국방부 소유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 온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전 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첫째, 새 이전 후보지에 건물을 지어주고 군은 현재 부지를 내놓는 기부 대 양여 방식과 둘째, 국방부가 환경부와 협의해 자체적인 특별 회계를 통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군부대 부지가 사유지나 공유지로 밝혀진 만큼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맞지 않다. 무등산 정상은 군부대가 무단 및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하며 '특별회계' 방식을 통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 대대급 이상 대규모 군사시설이 있는 곳은 무등산 국립공원이 유일하다고 한다. 무등산 정상은 광주시와 공군이 1996년 무상사용 협약을 맺은 이후, 3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다시 사용 허가를 해주어, 내년 말까지 무상사용이 이뤄진다. 무등산 군부대 이전 논의를 지금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번엔 화재로 가동중단…불안한 한빛원전

엊그제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자로 가동이 또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원전의 핵심 설비를 제어하는 배전함에서 불이 나 20여 분간이나 지속됐지만 자동 진화가 이뤄지지 않아 자체 소방대가 나서서 불을 껐다고 한다. 한빛원전 2호기의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은 올 들어서만 두 번째이다. 이러다 대형 원전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한빛원전 2호기 비안전 전원계통 계기용 변압기에서 전기 불꽃방전으로 연기가 발생하면서 불이 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냉각재 펌프 3대 중 1대가 정지되면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다. 원전 측은 이번 사고로 방사성 물질 누출 등 환경 영향은 전혀 없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안정성이 검증된 뒤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 측의 설명대로라면 일단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시·도민의 불신이 너무 크다. 지난 2013년부터 부실 정비 등으로 현재까지 모두 4차례나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화재 사고가 난 해당 설비의 부품은 지난해 9~11월에 교체되어 그다지 오래된 것도 아닌 데다 정기 점검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고가 난 것은 형식적인 점검이나 부실한 품질 관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난 1984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떠올리지 않아도 원전에서는 한 치의 실수나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다. 대형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 점검을 통해 원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광복 70주년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해 그 많던 천석 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배 참 봉나리/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락호 아닐진대…"

독립운동가 김용환(1887~1946) 선생의 외동딸 김후옹 여사는 1995년 정부가 선친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자 '우리 아배 참봉 나리'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남겼다.

학봉 김성일 선생의 13대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당시 조선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파락호(破落戶)로 불렸다. 파락호는 재산이나 세력이 있는 가문의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난봉꾼을 뜻한다.

그는 안동 지역 노름판을 돌며 재산을 탕진했다. 심지어 딸이 시집갈 때 시댁에서 받은 농값까지 가로챘다. 하지만 뒤늦게 노름으로 탕진한 줄로 알았던 재산이 고스란히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선비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한평생 파락호라는 불명예까지 기꺼이 뒤집어썼던 것이다. 반면 일제에 아첨하며 자신만의 영달을 좇았던 친일 인사들은 훨씬 더 많았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을 무수히 잡아들여 고문했던 친일 경찰 노덕술(1899~1968)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는 해방 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체포되기도 했으나 다시 경찰직에 복귀해 활동을 이어갔다.

노덕술은 1947년 약산 김원봉(1898~1958) 선생을 '남로당이 주도한 파업에 연루됐다'는 죄목으로 체포해 빰을 때리고 모욕하기도 했다. 평생 독립운동을 해왔던 지사가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에게 수모를 당할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약산은 1948년 남북협상 때 김구·김규식 선생 등과 평양을 방문했다가 결국 잔류하는 선택을 한다.

최근 개봉한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의 흥행이 뜨겁다. 영화 속 독립운동가와 친일인사 캐릭터는 실제 인물들을 투영하고 있다. 광복은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고 산화한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친일 잔재 청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이다. 영화에서 영감(오달수 역)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잊지마!" /송기동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